| 이슈페이퍼 2023-09 |

양육실태와 정책 수요를 고려한 영아 양육지원 전략 및 정책 과제

이정원

1. 배경
2. 영아 양육 실태
3.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양육실태와 정책 수요를 고려한 영아 양육지원 전략 및 정책 과제[1)]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 요 약 ♦♦♦

- 최근 들어 영아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정책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한국의 영아 양육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정책 기조는 국가 수준의 유관 기본계획의 기조 변화와 맞물려 변화해 왔으며, 2010년대 후반 이후 특히 '영아기 집중투자' 및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 지원 확대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 영아에 대한 양육형태의 다양성 보장, 형평성 제고, 가정양육 지원의 확대 경향 속에서 최근 '서비스' 위주에서 '현금' 및 '시간'지원이 크게 확대·강화되고 있음. 이로인해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 변화에 따른 유관 정책지원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가정양육, 기관보육 등 영아가구가 희망하는 양육형태에 따른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 범주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수요자 욕구별 충분한 정책지원을 위해 욕구별 차등지원의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영아의 세부연령별 주된 정책지원의 전략 차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배경

가. 영아기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

- 영아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정책적 차별화 경향
  - 최근 들어 생애 초기에 대한 재정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영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

1) 본고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3년 기본과제인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이정원·유해미·조혜주·김윤환·신윤정·한인애)」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됨.

- 이러한 기조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영아기 집중투자'가 강조되기 시작한 이래(대한민국정부, 2020: 77-78)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함.
- 윤석열 정부에서는 영아기를 타겟화한 대표적인 정책 지원으로 '부모급여'를 2023년부터 도입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1. 4).

나. 영아 양육지원 정책 기조의 변화와 영향

가정양육 지원 강화와 현금 및 시간지원의 부상

- 2009년 이전의 영아 양육지원은 여성 경제활동 지원 목적으로 유아와 동일하게 기관서비스 이용 접근성 강화 위주로 확대됨. 이후 제1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의 보완·수정 계획인 '아이사랑플랜'을 통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2009년 0~1세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를 위한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됨.
  - 한편 2012~2018년까지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 시설보육과 가정 내 보육의 형평성 제고, 가구특성별 맞춤형 지원 등을 방향성으로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연령 확대, 육아휴직급여의 상향 조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 영아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연령 대상 확대 등이 추진됨.
- 특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영아가구의 소득보장과 현금지원의 필요성에 따른 '영아 가구 집중투자'가 강조되면서, 최근 영아 양육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도 기존의 시설 보육 등 서비스 위주에서 영아수당, 부모급여 도입 등 현금성 지원과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이 강화되고 있음.
  - 그간 가정양육수당 도입 후 지원 대상 연령 및 지급액을 확대하였으나, 0세 기준 최대 20만원으로 현금 지원은 동일 연령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음. 이를 고려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2024년 기준 0세 100만원, 1세는 50만원이 지급되는 부모급여, 0세에게 일시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은 매우 파격적인 수준의 현금지원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영아자녀의 양육 방식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기관 서비스 위주인 유아에 비해 다양하며(정미라·김경숙·이방실, 2013: 185), 이에 따라 기관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된 유아에 비해 선호하는 양육 방식에 따른 선택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

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임.

- 영아 양육을 위한 현금 및 시간지원 확대의 영향과 대응
  - 단, 가정양육 지원 강화의 수단으로 현금, 시간지원 위주의 확대·강화는 '서비스' 영역에 대한 수요 축소 및 이로 인한 인프라의 위축을 우려하게 하는 면이 있음.
    - 이에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기조 및 정책도구의 변화로 인해 나타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본고에서는 현재 영아 양육가구의 양육 실태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2 영아 양육 실태

- 0~2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 1,021명을 대상으로 영아 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영아의 주양육자와 부모 양육 실태

- 영아의 연령, 부모 취업 상황에 따라 주양육자의 차이가 있음
  - 영아의 낮시간 주양육자(사람 또는 기관)는 '어린이집'(45.5%)과 엄마 (43.3%)가 대부분이며 조부모 또는 친인척(6.3%)의 비중은 크지 않음.
    - 만0세 때는 엄마(75.4%)가 주로 돌보나, 만1세와 만2세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 만0세 때 주로 가정양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53.5%) 비맞벌이인 경우(35.3%)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 영아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 이용률, 즉 모의 돌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영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가 가정양육을 위해 외벌이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가정양육을 하는(주양육자가 엄마인) 가구의 소득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단, 영아의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수준이 높아질 경우 저소득 가구일수록 가정양육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음을 유의해야 함.

〈표 1〉 영아의 주양육자

단위: %(명)

구분	엄마	아빠	조부모 또는 친인척	정부지원 아이 돌보미	민간 육아 도우미	이웃, 지인	어린이집	계(수)
전체	43.8	1.3	6.3	0.8	2.3	0.1	45.5	100.0(1,02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75.4	2.2	8.2	1.3	1.9	0.0	11.0	100.0(317)
만1세	44.0	1.5	6.7	0.6	2.1	0.0	45.2	100.0(341)
만2세	16.0	0.3	4.1	0.6	2.8	0.3	76.0	100.0(363)
X^2(df)				307.0(12)***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30.0	0.9	10.6	1.2	3.6	0.2	53.5	100.0(576)
맞벌이 아님	61.6	1.8	0.7	0.2	0.4	0.0	35.3	100.0(445)
X^2(df)				131.7(6)***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54.5	2.2	1.1	0.5	2.2	0.0	39.5	100.0(365)
400만원~700만원 미만	39.0	0.9	8.1	0.7	1.2	0.0	50.1	100.0(433)
700만원 이상	35.4	0.4	11.2	1.3	4.5	0.4	46.6	100.0(223)
X^2(df)				63.0(12)***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215-216.
*** p 〈 .001.

보조 양육자 유무

- 영아 가구의 절반 이상이 가족 및 혈연에게 보조적인 양육 도움을 받고 있음
  - 보조양육자가 없는 경우는 40.2%이며,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는 '가족 및 혈연'이 보조양육자라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음 비중을 차지함.
  - 영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맞벌이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보조양육자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2〉 영아의 보조양육자(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가족 및 혈연	정부지원 아이 돌보미	민간 육아 도우미	이웃, 지인	기타	도움을 주는 사람 없음	(수)
전체	55.3	5.2	1.9	2.0	0.7	40.2	(1,02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61.5	7.3	3.5	0.9	0.3	33.1	(317)
만1세	54.5	5.9	1.5	1.5	0.9	41.1	(341)
만2세	50.7	2.8	0.8	3.3	0.8	45.5	(363)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65.3	5.9	2.3	1.7	0.7	30.4	(576)
맞벌이 아님	42.5	4.3	1.3	2.2	0.7	52.8	(445)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7.9	5.2	0.8	1.1	1.4	47.1	(365)
400만원~700만원 미만	58.0	4.6	2.3	1.6	0.2	38.3	(433)
700만원 이상	62.3	6.3	2.7	4.0	0.4	32.3	(223)

주: 중복 응답으로 합계가 100%를 초과함.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17.

◆ 영아 양육자(주/부)에 대한 지출 비용 부담

- 비용 지출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10만원 미만'(19.3%), '10-30만원 미만'(13.9%), '30-50만원 미만'(11.5%) 순임.
- 맞벌이인 경우, 보조양육자가 있을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영아의 주된 혹은 보조양육자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임.
- 영아의 연령은 낮을수록 비용지출이 없는 비율이 높은데, 이는 영아가 어릴수록 주양육자가 '엄마'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됨.

〈표 3〉 영아의 양육자/기관에 지불하는 월평균 비용

단위: %(명)

구분	비용 지출 없음	10 만원 미만	10~ 30만원 미만	30~ 50만원 미만	50~ 70만원 미만	70~ 100만 원 미만	100 만원 이상	계(수)
전체	36.9	19.3	13.9	11.5	6.9	4.2	7.3	100.0(1,02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51.7	10.4	9.1	10.4	5.4	6.3	6.6	100.0(317)
만1세	39.9	17.6	12.3	11.4	8.2	3.5	7.0	100.0(341)
만2세	21.2	28.7	19.6	12.4	6.9	3.0	8.3	100.0(363)
X^2(df)				96.1(12)***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31.8	17.3	13.1	13.6	8.2	6.1	10.0	100.0(611)
없음	44.6	22.2	15.1	8.3	4.9	1.5	3.4	100.0(410)
X^2(df)				51.3(6)***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28.6	17.0	14.8	12.5	9.7	5.9	11.5	100.0(576)
맞벌이 아님	47.6	22.2	12.8	10.1	3.1	2.0	2.0	100.0(445)
X^2(df)				85.3(6)***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2.7	23.8	13.7	11.2	4.1	3.3	1.1	100.0(365)
400만원~700만원 미만	35.1	19.2	15.7	11.1	7.4	3.7	7.9	100.0(433)
700만원 이상	30.9	12.1	10.8	12.6	10.3	6.7	16.6	100.0(223)
X^2(df)				76.6(12)***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219-220.
*** p 〈 .001.

- 양육자와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 부담은 부담스럽다 29.8%, 부담스럽지 않다 16.8%로 응답됨.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임.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어린이집보다는 가정 내 양육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에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표 4〉 양육자/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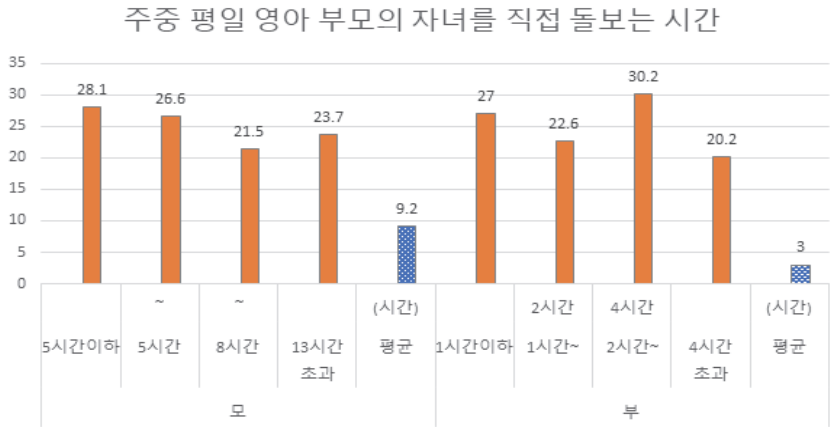
구분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부담스럽지 않다	보통이다	부담스럽다	매우 부담스럽다	계(수)	평균(점)
전체	8.2	16.8	35.7	29.8	9.5	100.0(644)	3.2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4.6	18.3	26.1	37.9	13.1	100.0(153)	3.4
만1세	8.3	14.6	36.6	29.8	10.7	100.0(205)	3.2
만2세	10.1	17.5	40.2	25.5	6.6	100.0(286)	3.0
X^2(df)/F			20.2(8)*				5.8**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7.3	14.8	33.3	33.3	11.2	100.0(411)	3.3
맞벌이 아님	9.9	20.2	39.9	23.6	6.4	100.0(233)	3.0
X^2(df)/t			13.8(4)**				3.4**
어린이집 이용 여부							
이용함	9.4	17.4	39.7	26.3	7.1	100.0(448)	3.0
이용하지 않음	5.6	15.3	26.5	37.8	14.8	100.0(196)	3.4
X^2(df)/t			23.8(4)***				−3.9***

주: 평균은 '매우 부담스럽다=1'~'전혀 부담스럽지 않다=5'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스러워함을 의미함.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21.
* p 〈 .05, ** p 〈 .01, *** p 〈 .001.

부모 직접돌봄 실태

- 어머니 위주의 직접 돌봄 경향이 발견됨.
  - 주중 평일 기준 영아 부모가 주중 평일에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은 모의 경우 평균 9.2시간, 부의 경우 3.0시간으로 어머니가 돌보는 시간이 3배 이상임.
  - 주말 기준 부모의 영아 돌봄 시간은 모 12.7시간, 부 8.3시간으로 어머니가 많았지만, 주중일 때보다는 차이가 감소함. 단, 주중·주말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여성의 자녀돌봄시간이 남성보다 긴 경향이 나타남.
  - 단, 영아가 어릴수록, 맞벌이인 경우, 모의 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즉, 외벌이 가구 또는 어머니의 근로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 위주의 양육 경향이 두드러짐.

[그림 1] 주중 평일 영아 부모의 자녀 직접 돌봄 시간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22.

〈표 5〉 부의 자녀 직접 돌봄 시간_주중 평일

단위: %(명), 시간

구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계(수)	평균(시간)
전체	27.0	22.6	30.2	20.2	100.0(1,000)	3.0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23.1	21.5	30.4	25.0	100.0(312)	3.4
만1세	26.9	23.3	28.4	21.5	100.0(335)	3.0
만2세	30.6	22.9	31.7	14.7	100.0(353)	2.7
X^2(df)/F		13.5(6)*				6.6**(a)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22.1	22.3	31.7	23.9	100.0(565)	3.4
맞벌이 아님	33.3	23.0	28.3	15.4	100.0(435)	2.6
X^2(df)/t		21.2(3)***				4.6***
월평균 모의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34.4	21.6	30.8	13.2	100.0(250)	2.5
300만원 미만	23.4	22.9	31.1	22.6	100.0(354)	3.2
300~500만원 미만	25.5	24.3	30.3	19.9	100.0(251)	3.0
500만원 이상	25.5	20.7	26.9	26.9	100.0(145)	3.5
X^2(df)/F		18.7(9)*				5.4**(a)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224-225.
* p 〈 .05, ** p 〈 .01, *** p 〈 .001.

나.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실태

어린이집 이용 특성

-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수요는 적지 않은 수준임.
  - 영아 가구 조사에서 하루 기준으로 최소 3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54.4%이며,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맞벌이인 경우,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길 경우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 영아 연령별로는 만0세아는 16.1%에 불과하나 만2세아는 86.8%로 대다수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는 62.3%로 외벌이 가구(44.3%)에 비해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며, 또한 어머니가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73.7%로 높음.

〈표 6〉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54.5	45.5	100.0(1,02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16.1	83.9	100.0(317)
만1세	55.7	44.3	100.0(341)
만2세	86.8	13.2	100.0(363)
X^2(df)		341.3(2)***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62.3	37.7	100.0(576)
맞벌이 아님	44.3	55.7	100.0(445)
X^2(df)		33.0(1)***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38.7	61.3	100.0(524)
40시간 미만	68.7	31.3	100.0(265)
40시간 이상	73.7	26.3	100.0(232)
X^2(df)		108.5(2)***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228-229.
*** $p < .001$.

- 어린이집 이용 영아는 9시 등원, 16시 30분 하원하여 평균 7시간 24분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대부분(88.1%)의 영아가구가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 어머니의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총 이용시간도 8시간18분으로 가장 길었으나, '(어린이집을)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6.4%로 상대적으로 높아 장시간 기관 이용이 필요한 실수요 가구에서 돌봄 공백이 우려됨. 이에 주 40시간 종일근로 이상의 장시간 근로 가구에 대한 공백 없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표 7〉 영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각 및 이용시간

단위: %(명)

등원시각				하원시각					이용시간	계(수)
9:00 이전	9:00~9:30 이전	9:30 이후	평균 시각	16:00 이전	16:00~16:30 이전	16:30~17:30 이전	17:30 이후	평균 시각		
30.0	36.9	33.1	9시	24.3	33.6	20.5	21.6	16시 30분	7시간 24분	100.0 (556)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231-234.

〈표 8〉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충분성 여부

단위: %(명), 시분

구분	어린이집 총이용시간	충분성 여부		계(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7시간 24분	88.1	11.9	100.0(556)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7시간 36분	84.3	15.7	100.0(51)
만1세	7시간 24분	87.4	12.6	100.0(190)
만2세	7시간 24분	89.2	10.8	100.0(315)
X^2(df)		1.2(2)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7시간 54분	87.7	12.3	100.0(359)
맞벌이 아님	6시간 36분	88.8	11.2	100.0(197)
X^2(df)		0.1(1)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6시간 36분	87.7	12.3	100.0(203)
40시간 미만	7시간 36분	92.9	7.1	100.0(182)
40시간 이상	8시간 18분	83.6	16.4	100.0(171)
X^2(df)		7.2(2)*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5.
* $p < .05$.

영아의 연장보육 이용

- 어린이집 이용가구 중에서 연장보육(16:00~19:30)을 이용하는 비율은 44.1%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들은 장시간 보육에 대한 실수요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연장보육 이용률은 자녀연령별로는 0세아(54.9%), 맞벌이 가구(58.2%), 모(母)가 규칙적으로 근로하는 경우(63.3%),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65.5%) 높게 나타남.
  - 모(母)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300만원 미만에 비해 연장보육 이용률이 낮게 나타남. 이들 가구는 어린이집 기본보육만 이용하고 연장보육 대신에 다른 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것으로 짐작됨.
  - 즉, 어머니가 취업 중이며, 특히 근로시간이 긴 경우처럼 장시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영아가구 중에서도 개별돌봄서비스 등 비용 부담이 높은 대체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서 특히 어린이집 연장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임.

〈표 8〉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전체	44.1	55.9	100.0(556)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54.9	45.1	100.0(51)
만1세	45.3	54.7	100.0(190)
만2세	41.6	58.4	100.0(315)
X^2(df)		3.3(2)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58.2	41.8	100.0(359)
맞벌이 아님	18.3	81.7	100.0(197)
X^2(df)		82.3(1)***	
본인 근로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63.3	36.7	100.0(264)
불규칙적으로 출퇴근/재택근무/교대근무	48.3	51.7	100.0(89)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17.2	82.8	100.0(203)
X^2(df)		99.4(2)***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17.2	82.8	100.0(203)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40시간 미만	53.8	46.2	100.0(182)
40시간 이상	65.5	34.5	100.0(171)
X^2(df)		98.2(2)***	
월평균 본인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19.1	80.9	100.0(110)
300만원 미만	52.5	47.5	100.0(219)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47.6	52.4	100.0(147)
500만원 이상	48.8	51.3	100.0(80)
X^2(df)		35.6(3)***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236-237.
*** p 〈 .001.

◆ 가구소득 기준에 따른 자부담을 하게 될 경우 연장보육 이용 의향은 46.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현재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연장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자부담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46.9%만이 이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자부담 연장보육 이용 의향은 모(母)의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하 이거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냄.

〈표 9〉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시 연장보육 이용 의향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없다	없다	전혀 없다 + 없다	보통	있다	매우 있다	매우 있다+ 있다	계(수)	평균 (점)
전체	10.2	15.9	26.1	26.9	35.5	11.4	46.9	100.0(245)	3.2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10.5	15.3	25.8	26.3	35.9	12.0	47.8	100.0(209)	3.2
맞벌이 아님	8.3	19.4	27.8	30.6	33.3	8.3	41.7	100.0(36)	3.1
X^2(df)/t					1.1(4)(b)				0.5
월평균 본인 근로 소득									
근로소득없음	14.3	28.6	42.9	28.6	19.0	9.5	28.6	100.0(21)	2.8
300만원미만	14.8	17.4	32.2	25.2	31.3	11.3	42.6	100.0(115)	3.1
300~500만원 미만	2.9	11.4	14.3	28.6	47.1	10.0	57.1	100.0(70)	3.5
500만원 이상	7.7	12.8	20.5	28.2	35.9	15.4	51.3	100.0(39)	3.4

구분	전혀 없다	없다	전혀 없다 + 없다	보통	있다	매우 있다	매우 있다+ 있다	계(수)	평균 (점)
X^2(df)/F					15.9(12)(b)				3.3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미만	6.8	25.0	31.8	25.0	38.6	4.5	43.2	100.0(44)	3.1
400~700만원 미만	12.9	16.5	29.5	28.1	30.2	12.2	42.4	100.0(139)	3.1
700만원이상	6.5	8.1	14.5	25.8	45.2	14.5	59.7	100.0(62)	3.5
X^2(df)/F					12.5(8)				3.1

주: 평균은 '전혀 없다=1점'~'매우 있다=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함.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9.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 및 이용 희망 시기

- 영아는 실제 희망했던 시기보다 이르게 어린이집 이용을 시작하고 있음.
  -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최초 이용 시작 시기는 평균 14.9개월이며, 11개월 이하부터 이용을 시작한 경우가 2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맞벌이 가구 영아는 11개월 미만에 이용을 시작한 경우가 34.5%로 가장 많고 평균 시작시기가 13.8개월로,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 비해 약 3.2개월 빨리 이용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표 10〉 현재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최초 이용 시작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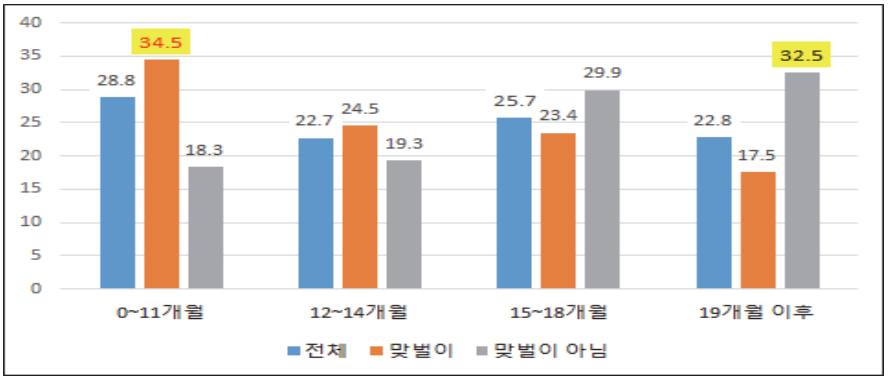
단위: %(명), 개월

구분	0개월 ~ 11개월	12개월 ~ 14개월	15개월 ~ 18개월	19개월 이후	계(수)	평균 (개월)
전체	28.8	22.7	25.7	22.8	100.0(556)	14.9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34.5	24.5	23.4	17.5	100.0(359)	13.8
맞벌이 아님	18.3	19.3	29.9	32.5	100.0(197)	17.0
X^2(df)/t			27.8(3)***			-6.1***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40.
*** p 〈 .001.

[그림 2] 영아의 어린이집 최초 이용시기(맞벌이 여부별)

단위: %



주: 〈표 10〉을 그림으로 구성함.

◆ 어린이집 이용 영아 중 절반 정도는 '희망하는 시기보다 빨리 이용'한 경우였음(50.7%).

- 희망하는 시기보다 어린이집을 빨리 이용한 비율은 맞벌이 가구 (52.4%),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모(母) 가구(60.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희망 시기와 실제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희망했던 입소 시기는 평균 21.9개월로 나타남.

〈표 11〉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시기와 희망 시기의 일치 여부

단위: %(명)

구분	희망시기와 일치함	희망시기보다 늦게 이용함	희망시기보다 빨리 이용함	계(수)
전체	40.6	8.6	50.7	100.0(556)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39.8	7.8	52.4	100.0(359)
맞벌이 아님	42.1	10.2	47.7	100.0(197)
X^2(df)		1.5(2)		
본인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41.9	10.8	47.3	100.0(203)
40시간 미만	47.8	6.6	45.6	100.0(182)
40시간 이상	31.6	8.2	60.2	100.0(171)
X^2(df)		12.3(4)*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240-241.
* p 〈 .05.

◆ 희망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이른 입소를 결정함.

- 어린이집을 최초로 이용한 시기가 희망하는 시기보다 빠르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큰 이유는 '희망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39.0%)로 나타남.

〈표 12〉 희망시기보다 빨리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이유

단위: %(명)

희망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육아휴직 후 예상보다 빨리 복귀하게 되어서	집에서 돌볼 수 없게 되어서 (주양육자의 취업, 질환 등)	기타	계(수)
39.0	21.6	36.9	2.5	100.0(282)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42.

다. 미이용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계획

◆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도 대부분 어린이집 이용 계획이 있음

- 현재 어린이집과 이외 학원 및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 중 73.7%는 향후 기관[1]을 보낼 계획이 있으며, 계획하는 이용 시기는 평균 21.6개월, 이용을 계획하는 기관 유형은 어린이집이 96.1%로 대부분임.

라. 영아 양육의 애로사항과 정책 지원 요구

▢ 영아 양육의 애로사항

◆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양육비용이 가장 큰 애로사항

- 영아 양육시 부모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2순위까지 답하도록 하여 살펴 본 결과, 1순위 기준 '영아 양육에서의 육체적·정신적 힘듦(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33.0%), 이외 '아이를 믿고 맡길 기관이나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23.5%), '비용 부담'(19.2%) 등의 순으로 응답됨. 1, 2순위를 합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응답 경향을 보임.
- 취업한 부모의 경우 전반적인 '일-자녀양육 병행'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휴직·퇴

1) 기관은 최소 하루 3시간 이상 이용하는 놀이학원, 영어학원, 선교원, 체능단 등 기준임.

사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 경력단절 등 장기적으로 가구소득을 감소시키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 영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아이를 믿고 맡길 기관이나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23.5**	**36.4**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듦	**19.2**	**35.1**
아이를 키우는데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듦	**33.0**	**54.0**
영아기 발달에 맞는 양육 방법, 지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0.9	5.8
휴직 · 퇴사 등으로 가구 소득이 줄어 듦	8.8	22.2
휴직 · 퇴사 등으로 경력단절,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이 있음	2.9	10.7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움	10.3	26.6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것 같음	1.4	8.9
기타	-	0.3
계(수)	100.0(1,021)	(1,021)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54.

- 자녀를 키우면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중 경력 상의 불이익은 주로 어머니가 겪은 것으로 나타남.
  - 어머니 중 44.5%가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력상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14〉 자녀를 키우면서 경력상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명)

구분	있다	없다	계
엄마(본인)	44.5	55.5	100.0(1,021)
아빠(배우자)	9.5	90.5	100.0(1,000)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56.

영아 가구의 정책 요구

- 영아 부모들은 영아 양육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현금지원'과 '시간지원'을 꼽고 있음.
  - 영아를 양육하는데 있어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을 필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

답하도록 한 결과,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 지원'이 25.9%로 가장 많이 응답됨.

- 이외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22.0%), '일정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지원(육아휴직)'(21.1%), '부모를 대신해 장시간 돌봐줄 수 있는 기관보육 서비스 지원'(13.3%), '필요할 때 단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시간제 보육,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등)'(11.4%), '부모를 대신해 가정에서 아이를 장시간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 지원(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6.4%) 순으로 응답됨.
- 즉, 영아 부모들은 우선적으로 영아 양육기간 중 감소하는 소득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에 대처하기 위한 '현금지원'에 요구도가 크며, 영아의 돌봄에는 부모 본인의 직접 돌봄을 선호하여 이를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대리 돌봄서비스를 희망하더라도 외부 인력이 개인의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보다는 가급적 믿을 수 있는 '기관 보육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임. 이는 영아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비교적 일관된 경향이었음[2].

〈표 15〉 자녀 양육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명)

구분	부모를 대신해 장시간 돌봐줄 수 있는 기관 보육 서비스 지원	부모 대신 아이를 가정에서 장시간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 지원	필요할 때 단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일정 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지원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지원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 지원	계(수)
1순위	13.3	6.4	11.4	21.1	22.0	25.9	100.0(1,021)
1+2순위	24.7	13.5	24.2	36.4	49.5	51.7	(1,021)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77.

영아 가구 특성별 요구

- 영아 가구의 맞벌이 여부 등 취업특성, 가구소득, 영아의 연령 등 가구특성별로 가장

2) 연령 등 제특성별 응답결과는 이정원 외(2023)의 p. 261 〈표 Ⅴ-2-3〉 영아 양육 서비스 이용 경험 만족도를 참조할 것.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에 차이를 보임.

- 맞벌이 여부 및 부모의 취업특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짐.
  - 맞벌이 가구인 경우 현금 지원 보다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지원 요구('일정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지원'에 대한 요구 21.1%,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지원' 22.0%)'가 높으며, 서비스 지원 중에서는 장시간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기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14.9%)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서비스'(10.6%)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반면 외벌이 가구는 현금 지원에 대한 요구(34.2%)가 가장 높고, 서비스 지원 중 '필요할 때 단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12.4%)가 높게 나타남.
  - 어머니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에 차이를 보임. 어머니가 4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일정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지원'에 대한 요구(28.4%)를 비롯해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지원'(24.1%) 등 시간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남. 반면, 주 4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미취업 등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는 '현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음.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현금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영아의 연령은 낮을수록 육아휴직 등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집중적인) 시간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지원'은 영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요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2세의 경우 '기관보육서비스' 지원 요구가 0-1세 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임.

〈표 16〉 자녀 양육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

단위: %(명)

구분	장시간 대리돌봄을 위한 기관 보육 서비스 지원	장시간 대리돌봄을 위한 가정 내 개별돌봄 서비스 지원	필요할 때 단시간 이용할 수 있는 대리돌봄 서비스 지원	일정 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지원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지원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 지원	계(수)
전체	13.3	6.4	11.4	21.1	22.0	25.9	100.0(1,021)
막내 자녀 나이							
만0세	12.9	6.9	11.7	23.7	20.2	24.6	100.0(317)
만1세	12.0	6.7	11.4	21.7	21.7	26.4	100.0(341)
만2세	14.9	5.5	11.0	18.2	24.0	26.4	100.0(363)
$X^2(df)$			5.8(10)				
맞벌이 여부							
맞벌이임	14.9	6.9	10.6	24.8	23.3	19.4	100.0(576)
맞벌이 아님	11.2	5.6	12.4	16.2	20.4	34.2	100.0(445)
$X^2(df)$			34.8(5)***				
본인(모)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미취업/미학업/휴직/휴학	11.5	6.9	10.7	19.1	21.2	30.7	100.0(524)
40시간 미만	14.7	6.4	11.3	18.5	21.9	27.2	100.0(265)
40시간 이상	15.9	5.2	12.9	28.4	24.1	13.4	100.0(232)
$X^2(df)$			31.9(10)***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11.8	4.9	11.2	16.4	20.5	35.1	100.0(365)
400만원~700만원 미만	13.2	7.2	11.5	23.6	23.1	21.5	100.0(433)
700만원 이상	16.1	7.2	11.2	23.8	22.4	19.3	100.0(223)
$X^2(df)$			29.1(10)**				

자료: 이정원 외(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278-279.
** p 〈 .01, *** p 〈 .001.

3 결론 및 정책제언

- 영아가구의 양육실태 및 정책 요구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 및 세부 정책 방안을 제시함.

가. 결론: 영아 양육지원 수요의 특성

◆ 영아 가구의 특성별로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가 다양함

-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근로형태 등 영아가구의 특성별 애로사항 및 필요한 양육지원 욕구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영아 연령별 필요로 하는 양육지원 정책에 차이가 있음

- 영아양육을 위해 부모들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영아의 세부연령별로 다소 차이를 보임.
- 연령별 필요로 하는 지원 요구를 종합하면 0~1세 시기에는 '부모의 직접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고, 직접 돌봄을 위한 근로 형태의 변화로 인한 가구소득의 감소와 양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현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아 보육 실수요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영아의 가정 내 양육 선호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취업, 가구소득, 근로환경 등의 조건에 따라 가정 내 양육이 불가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실수요층이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영아보육서비스 실수요층의 우선적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지원 필요함.

나.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성 제안

▢ 영아가구 특성에 따른 양육지원 욕구 대응을 위한 선택지 다양성·지원충분성 확보

-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양육 자원(서비스, 현금, 시간)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어떠한 지원을 선택하더라도 선택한 양육 방식에 도움이 되는 충

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욕구 대응의 충분성(충실성)'을 통해 영아가구에게 선호하는 양육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다양한 선택지의 보장을 방향성으로 제안함.

- 영아 연령별 핵심 양육지원 전략 차별화
  - 0~1세 시기에는 '부모의 직접 돌봄'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간지원의 이용 활성화, 직접 돌봄이 불가한 경우 가정 내에서의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가구소득 감소에 대응하는 현금 지원 확대 전략 등 다각적인 양육지원 전략이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할 것임. 특히, 어린 영아를 두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주(또는 보조)양육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부담이 큰 저소득 맞벌이 가구에 대한 저렴한 가정 내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제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세부터는 '기관 보육서비스' 이용과 '일하며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부모 직접 돌봄 시간지원'이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지원의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 영아 양육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정책제안

- 실수요층을 위한 기관 돌봄서비스 인프라 안정성 & 접근성 강화
  - 소규모 영아보육서비스 기관 마련
    - 부모급여 도입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기조에 따라 기관보육 수요는 감소, 영아보육서비스 인프라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영아 보육 실수요층을 위한 서비스 기관 인프라 안정성 확보가 시급함.
    - 특히 주 40시간 이상 종일제 이상의 장시간 근로, 규칙적인 출퇴근 형태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가정 양육을 선호하는 0세부터 장시간의 보육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실수요층을 위한 영아보육서비스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
    - 실수요층을 위한 영아보육서비스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 가능성 및 영유아 인구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19인 이하의 소규모 영아보육어린이집 형태의 신설 및 운영 기준 마련을 제안함.

- 입소대기 우선 항목에 '육아휴직 종료 예정'을 추가, 가정 돌봄-기관 돌봄의 원활한 연계 지원, 조기 이용 행태 방지.
  - 한편, 희망 시기보다 이른 시기에 어린이집을 조기 이용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수요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보육서비스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 특히, 육아휴직 복귀 예정자와 같이 가정 돌봄-기관 돌봄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수요자를 위한 기관 보육서비스 이용 연계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후 복귀예정자 등을 입소대기 우선순위 항목으로 '육아휴직 종료 예정'을 추가하여 원활한 연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는 육아휴직(부모 직접돌봄을 위한 시간지원 이용) 중 보육서비스(대리돌봄서비스) 를 이용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
- 영아 연장보육료 수익자 부담·차등지원 도입
  - 재정 확보를 통한 연장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영아 연장보육이용의 자격조건 유지 및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수익자 부담 기준 도입을 제안함.

욕구에 따른 차등지원 도입

- 현금지원 및 시간지원에도 지원의 충분성 담보를 위한 '욕구에 따른 차등지원'의 도입을 제안함.
  - 현금지원의 경우 보편적 지원 위주로 도입된 상황으로, 현금지원별 차별화가 되지 않는 상황임. 부모급여와 같이 지급액이 높은 현금지원에 대해서는 특히 가구소득 지원, 양육비 부담 경감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간지원의 경우도 '욕구'를 고려한 차등지원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간지원의 경우 욕구의 크기는 자녀수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고려, 자녀수와 무관하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같은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추가 부여하는 등의 차등지원 도입을 통해 '지원의 충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이밖에 시간지원은 여성 위주의 이용을 방지하고 성별 이용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외벌이 가구의 취업부모와 같이 시간지원의 취약 계층에 대한 특례 마련 등 보완이 필요함.

〈표 17〉 자녀수 기준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차등 부여 방안

개선 목표	대상 제도	방안
시간지원 욕구 대응	- 배우자 출산휴가	• 현행 자녀수 무관 배우자의 출산시 유급 10일의 휴가 부여 - 영유아 자녀수 기준(집중적 돌봄 필요) 자녀수 1명 추가 시 배우자 출산휴가 약 30~40% 추가 부여 - 예) 출생아 포함 영유아 자녀 1명 10일/ 2명 13~14일/3명 16~17일

〈표 18〉 시간지원의 취약대상을 위한 특례(안)

개선 목표	대상 제도	방안
시간지원 취약대상 지원	-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	• 외벌이 가구의 취업 부모, 한부모 가구의 취업부모 대상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특례 지원 - 육아휴직 급여 대체율 80%(상한액 200~300만원선 인상)

| 참 고 문 헌 |

대한민국정부(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이정원·유해미·조혜주·김윤환·신윤정·한인애(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정미라·김경숙·이방실(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지원에 대한 질적 연구. 제33권 제2호, pp.163-289.

[뉴스·신문기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1. 4.).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436&SEARCHKEY=TITLE&SEARCHVALUE=%EB%B6%80%EB%AA%A8%EA%B8%89%EC%97%AC(인출일: 2023. 3. 6.).